

# ‘V12까지 한 발’ KIA, 37년 만에 광주서 축포 쏜다

오늘 삼성과 한국시리즈 5차전  
양현종-이승현 좌완 선발 격돌  
‘만루홈런=우승’ 이어질 지 주목  
이범호 “냉정 찾고 계획적 준비”



호랑이 군단이 한국 시리즈에서 먼저 3승 고지를 밟으며 ‘V12’를 눈앞에 뒀다. 특히 전신 해태타이거즈 시절인 1987년 이후 광주에서는 37년 만에 우승 판파르를 터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KIA타이거즈는 28일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을 치른다. 4선승제로 치러지는 한국시리즈에서 KIA는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KIA는 안방에서 열린 1차전(5-1승)과 2차전(8-3승)을 싸늘이한 뒤 적지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로 향해 3차전에서 2-4로 일격을 당했으나 4차전에서 9-2 완승을 거두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승부의 향방은 장타에서 갈렸다. KIA는 3차전에서 제임스 네일과 전상현이 각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지난 26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KBO 포스트시즌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9-2로 승리한 후 자축하고 있다.

각 두 개의 솔로포를 허용하며 울었지만 4차전에서는 김태군의 만루 홈런,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썬기 투런포로 웃었다. 또 김선빈이 2루타 2개 포함 3안타를 날렸고 박찬호와 나성범, 소크라테스, 이창진, 김태군은 멀티히트를 생산했다.

특히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만루 홈런이 터졌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만루 홈런은 김유동(1982년 6차전)과 김동주(2001년 4차전), 최형우(2012년 2차전), 이범호(2017년 5차전) 등 네 명에게만 허락됐

고 이 선수들이 소속됐던 OB와 두산, 삼성, KIA는 모두 그 해 정상에 올랐다.

KIA가 만루 홈런의 우승 공식을 이어간다면 37년 만에 안방인 광주에서 판파르가 터진다. KIA는 잠실에서 9차례, 무등(광주)과 한밭(대전)에서 각각 1차례

씩 우승기를 펼쳤다. 광주에서는 두 번째이자 챔피언스필드로 경기장을 옮긴 후에는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승까지 마지막 한 발만 남은 KIA는 양현종, 버랑 끝에 몰린 삼성은 좌완 이승현을 선발로 출격시킨다. 양현종은 2차전 선발 등판에서 5.1이닝 2실점(1자책)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됐고, 이승현은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구원 등판에서 1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양 팀 사령탑은 선발 투수 공개와 함께 총력전을 예고했다. 한국시리즈는 단기전인 만큼 선수들은 짧은 시간에 온 힘을 쏟고, 벤치는 치열한 눈치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4차전을 마친 뒤 “대구에서 경기를 잘 치렀으니 광주에 돌아가서도 잘 해보겠다”며 “상황에 맞는 운영을 하겠다. 냉정함을 찾고 다른 생각 없이 원래 하던 느낌대로 5차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진만 삼성 감독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쓸 수 있는 모든 전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예고했다.

▶관련기사 14면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美 뉴욕한국문화원에 ‘전남 정원’ 조성

세계의 중심도시 미국 뉴욕 한복판에 ‘대한민국 전남 정원’이 조성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남 정원’ 준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김의환 뉴욕총영사,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공사를 맡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유미 사업이사, 황지해 작가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전남정원 조성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미국 방문 당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정원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높은 전남의 정원을 새로 이전한 뉴욕한국문화원에 조성해 달라’는 김천수 뉴욕문화원장의 제안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한국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뉴욕 심장부에 있는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전남 정원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정원은 뉴욕한국문화원 2, 3층 야외 테라스에 전남 출신 세계적 정원디자이너 황지해 작가가 한국 전통정원의 우아함과 전남의 자연 정취를 담아 설계·시공했다. 황지해 작가는 곡성 출신으로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금상을 3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국제적 명성이 높다.

정원 콘셉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정원인 담양 소쇄원 내 햇별 좋은 자리에

전통 담장 ‘소쇄원 애양단’ 콘셉트  
김 지사,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있는 전통 담장 애양단(愛陽壇)을 주제로 삶의 자세, 여유, 품격, 자연에 순응하는 삶 등 전남의 정신문화를 표현했다. 정원에는 한국산 전통 기와로 애양단 휴담장을 쌓고 전남의 절임문화를 상징하는 소금독, 우물 등 전통 소재를 사용해 소박하고 담백하게 표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서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의 초청

을 받아 ‘한미동맹의 진전과 글로벌 전남의 도약’을 주제로 연설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두 나라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1957년 벤 플리트 장군이 설립한 미국 최초의 한국 관련 비영리단체다.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저명인사가 이곳에서 연설했다.

김 지사는 “최근 밀착된 북·러 협력으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유라시아와 중동에서 전쟁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동북아 평화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2024 대흥사

## 호국대전 완공기념 문화대축제

불기 2568(2024)년 11월 2일 (토) 오전 10시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일원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최 (사)서산대사 호국정신선양회 대흥사표창사 함례보존회 BBS불교방송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해남군 협찬 전남일보 불교신문 BTN 법보신문 해남신문

### 호국문화제

|             |                                 |
|-------------|---------------------------------|
| 09:00~10:00 |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예제관 행렬 및 표창사 추계제향 |
| 10:00~11:00 |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 문화공연                |
| 11:00~12:30 | 추념법요식 및 현판제막식                   |
| 12:30~13:30 | 나라사랑 글쓰기 시상식 점심 공양              |

### 호국대전 완공기념 국제학술 세미나

|                 |                                |
|-----------------|--------------------------------|
| 11/2 (토) 13:30~ | 제1부 주제 16-17세기 동아시아 전쟁의 역사와 불교 |
| 11/3 (일) 09:00~ | 제2부 주제 호국불교 전통의 새로운 이해         |
| 11/3 (일) 14:00~ | 제3부 주제 16-17세기 전란의 극복과 호남불교    |